첫 주 수익 0원에서
앱 3개를 만들기까지

비전공자가 AI에 매달린 1년 8개월 - 신청 본문을 읽기 위한 핵심 기록

처음에는 제 블로그 글쓰기를 줄이려고 AI를 썼습니다. 개발자 동료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딸을 위한 게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2025.02.16 거북이버프 공개 도전

첫 주 수익 0원부터 유튜브에 과정을 남겼습니다.

2025.09.16 터틀메이커 정식 공개

개발자 동료와 함께 만든 글쓰기·발행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2026.01 공개 강의와 사용자 대응

유료 강의 6강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검색 누락 보고가 늘자 수동 발행을 안내하고 유료 사용자에게 20일을 추가했습니다.

2026.10 앱 제작과 스토어 심사

Claude for Startups 승인 뒤 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터틀런은 10월 17일 양대 스토어에 심사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며 매달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36시간을 붙잡고 고치다가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쌓아 온 경험의 일부를 겨우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날짜와 경험은 신청자가 확인한 원고 및 프로젝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1.67만 명

유튜브 구독자

첨부 2의 공개 채널 화면 표시값. 2026.10.20 준비 자료 기준.

374개

공개 채널 동영상

신청자의 유튜브 채널에 표시된 영상 수입니다.

1,972건

터틀메이커 결제 기록

2025.09.01-2026.10.08 결제 대행사 기록. 고유 고객 수나 개인 순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3개

제작한 앱

터틀메이커 앱·터틀팝·터틀런. 개발·심사·공개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AI에게 맡긴 일, 제가 확인한 일

글·기획, 개발, 그림, 2차 검토를 나눠 맡겼습니다. 결과는 제가 실제로 써 보고 확인했습니다. 고친 내용과 남은 일은 다음 작업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문서에 남겼습니다.

터틀메이커는 개발자 동료와 공동 개발·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공동 성과를 신청자 단독 개발·수익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